

아이들도 주눅이 들고... 학교에서는 '엄마란 으레 집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잦아질 때 문제는 아이가 갖게 되는 소외감과 피해의식.

누씨는 이런 문제들을 아들과 친구처럼 얘기하고 스스로 모든 일을 알아서 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자녀생활지도

『내일이 바르면 오늘에 서야 연락하니 갑작스레 조퇴를 할 수도 없고, 자꾸 불참하게 되니까 아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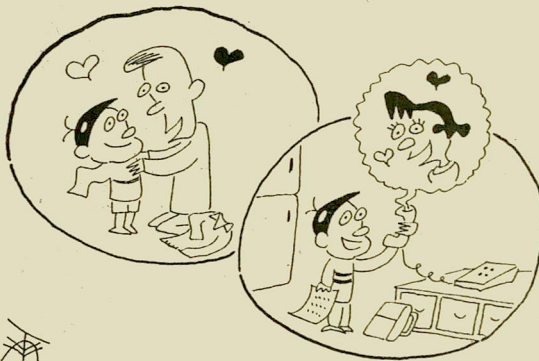
미대사관에 근무하는 李榮華씨(36)는 아들(10)이 다니는 학교의 바자 어머니회 등 엄마가 필요한 행사에 거의 참석할 수가 없었다.

첫면이 자녀의 육아문제 모습을 태우던 말벌이 부부들이 아이가 커가면서 겪는 또다른 어려움은 취학에 따른 생활지도와 교육의 문제다.

맞벌이夫婦

10

『소나기식 사랑』보다 친구처럼



아들이 취학전부터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해 아침에 출근할 때 아이를 때려쳐나가지 않고 깨어있는 아이와 단정하게 작별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미안한 마음에 소나기식 사랑을 퍼붓는 대신 『엄마에게도 아파처럼 할 일이

있다. 그러나 엄마는 저녁에 돌아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네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엄마에게 전화할 수 있다』고 아이에게 차근차

근 설명하고 『엄마도 힘들 때가 많아. 네 도움이 필요해』라고 솔직히 얘기해 주기도 한다.

열살 일곱살난 두 딸의

엄마인 국교교사 黃貞愛씨(38·서울송파구잠실동)는 일요근로때 직장에 아이를 데리고 가본 경험이나 자녀들이 엄마를 이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설명한다.

『내 책상과 교실들을 보여주며 『엄마가 여기서 언니를 가르친다』고 하니 아이들이 좋아하고 태도가 조금은 어른스러워졌어요』

또 휴일이면 딸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음식 등을 만들어주거나 아이와 친한 친구들의 이름을 의위 자주 물어보며 관심을 표시하려고 노력했다.

회사원 朱恩珍씨(35·경기성남시)는 아들(8)하고만 놀하는 약속을 만들

매일 「電話시간」... 서로의 입장 솔직히 對話

어 엄마가 늘 함께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노력하는 경우.

냉장고 옆에 메모판을 붙여놓고 서로에게 바라는 바를 쪽지에 적어 꽂아두는 것으로 애기를 주고 받으며 매일 오후 4시면 아들과 전화하는 시간으로 정해 하루의 일과를 가법게 물어보기도 한다. 특이할 때마다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안으며 『이건 엄마가 널 사랑한다는 표시야』라고 말해주고 아이가 세수 할때나 옷을 갈아입을 때는 남편(35)이 돌봐주도록 해 아파와의 접촉도 자주 가지주기도 한다. 신중을 쓴다.

맞벌이부부들은 학교에서도 점자 놀이가는 일하는 엄마들의 입장을 배려해 엄마의 도움이 과다하게 필요한 과제를 줄이고 아이들의 방과후 놀이와 공부를 위한 프로그램 을 제공해 지역단위의 시설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